

금융투자업 전망과 주요이슈 : 금융지주회사

정책 · 제도실장 장 욱



주요 현황:

❖ 금융지주회사법상 현재 8개 금융지주회사 존재

- 메리츠금융지주 설립을 예비인가(2010. 12. 01)
- 은행지주를 비롯해서 금융투자지주와 보험지주로 확대

(기준: 2010.12월말, 단위 : %, 백만원, 개)

지주회사명	상장 여부	설립 /전환일	자산총액	지주 비율	부채 비율	자/손/증손회사 수(상장회사)					
						자회사(상장)	손자회사(상장)	증손회사(상장)	증손회사(상장)	증손회사(상장)	증손회사(상장)
우리금융지주(주)	상장	2001-03-27	17,545,128	98.89	27.87	10	2	16	0	3	0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상장	2001-09-01	27,120,706	92.31	30.84	11	1	6	0	0	0
한국투자금융지주(주)*	상장	2003-01-11	2,957,589	87.45	42.59	5	0	7	0	3	0
(주)하나금융지주	상장	2005-12-01	11,465,293	97.93	20.10	7	0	2	1	1	0
(주) KB금융지주	상장	2008-09-29	18,663,464	94.37	4.55	9	0	3	0	0	0
한국SC금융지주(주)	비상장	2009-06-30	4,408,973	99.54	8.29	5	0	0	0	0	0
산은금융지주(주)	비상장	2009-10-28	16,778,337	99.51	3.01	5	1	16	0	0	0
한국씨티금융지주	비상장	2010-06-01	5,374,234	100.00	0.00	3	0	1	0	0	0

자료: 공정위

주1) 재무현황 및 자·손자회사 현황은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10년 이후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전환일을 기준으로 함

주2) *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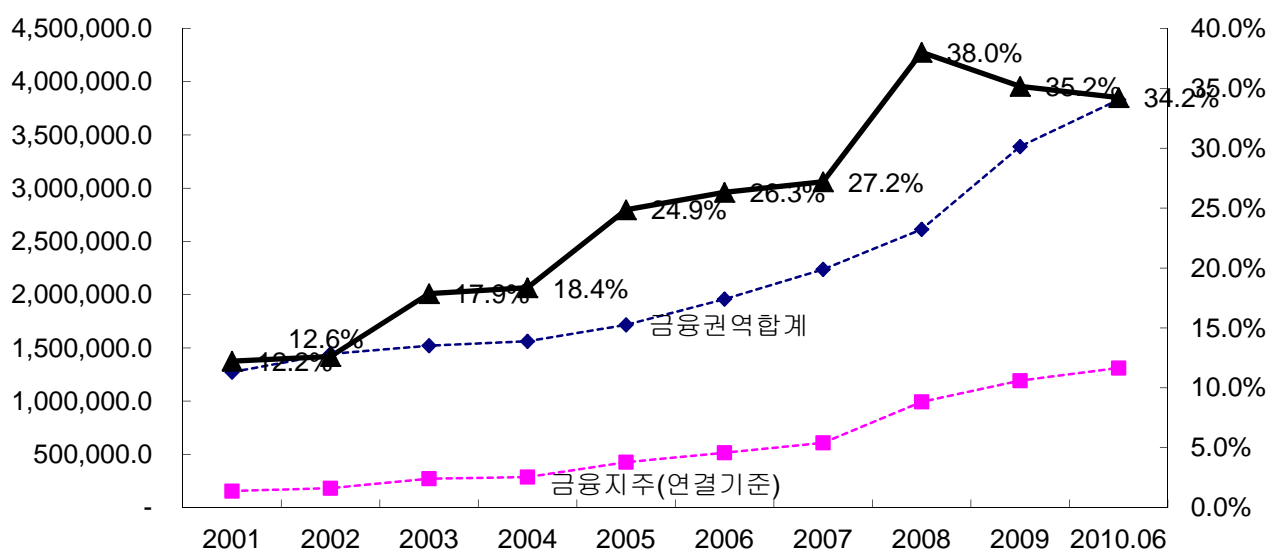
주요 현황: 규모

❖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전 금융권 총자산비중의 34%에 이르도록 성장

(대상: 총자산, 단위: 10억원)

연도	지주회사	은행	투자매매·중개업I	투자매매·중개업II	집합투자업	생명보험	합계
2001	155,558.9	915,135.2	58,945.2	578.9	1,386.6	137,962.2	1,272,477.1
2006	515,267.2	1,394,166.1	92,851.6	1,327.0	2,062.2	265,780.8	1,958,107.3
2008	993,565.0	1,870,632.7	131,760.9	2,799.0	2,976.5	320,408.3	2,613,689.9
2009	1,192,505.1	1,817,331.4	154,239.6	2,480.4	3,355.3	361,432.3	3,391,344.1
2010.06	1,311,070.1	1,939,766.9	192,481.9	1,925.8	3,540.9	381,661.6	3,830,447.2

자료: 금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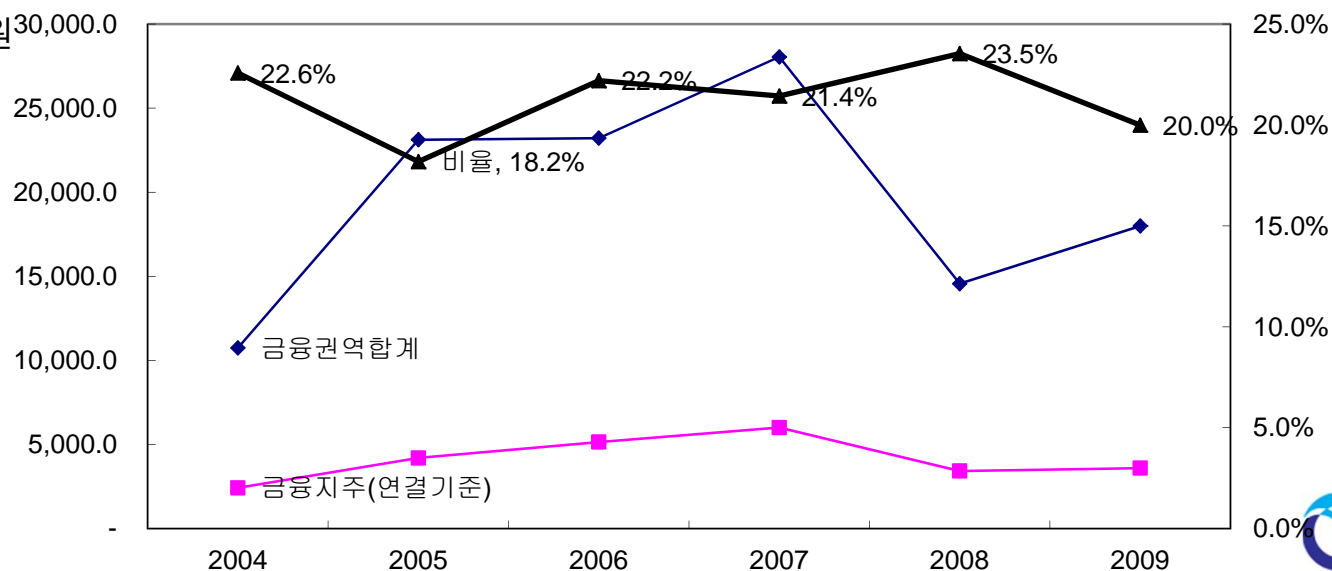
주요 현황: 성과

❖ 당기순이익은 2009년 말 현재 전 금융권 당기순이익의 20%를 차지

(대상: 당기순이익, 단위: 10억원)

연도	지주회사	은행	투자매매·중개업I	투자매매·중개업II	집합투자업	생명보험	합계
2001	897.4	4,684.2	923.9	23.6		1,722.8	9,499.3
2006	5,152.4	13,326.9	2,601.0	39.9	266.8	1,947.5	23,215.5
2008	3,428.1	7,667.0	1,455.0	102.3	402.5	570.3	14,566.0
2009	3,596.9	8,832.2	2,593.7	64.3	453.9	2,454.9	17,996.9
2010.1/4	2,718.1	3,810.4	378.6	15.0	107.3	1,285.0	8,114.2

자료: 금감원



주요 특징: 집중도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주력회사(은행) 집중도가 매우 높음

(대상: 총자산, 기준: 2010.09, 단위: 억원)

지주회사	은행	투자매매·중개업I	투자매매·중개업II	집합투자업	생명보험	합계	주력비중
우리지주	2,241,883	172,467	5,059	625	19,714	2,439,748	91.9%
신한지주	2,048,707	88,085	-	1,369	114,692	2,251,742	91.0%
하나지주	1,433,199	92,737	-	695	22,221	1,548,852	92.5%
KB지주	2,624,223	26,794	1,672	1,169	33,684	2,687,542	97.6%
SC지주	774,227	7,203	-	-	-	781,430	99.1%
한국투자지주	-	137,363	-	1,340	-	138,703	99.0%
산은금융지주	1,194,330	183,815	-	872	-	1,379,017	86.6%

자료: 각 사업보고서, 금감원

주요 특징: 시너지

❖ 금융지주회사는 뚜렷한 시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

- ROA, ROE, Tpbins's Q 등이 낮음
-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유기적 결합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기준: 2009.07~2010.06, 단위 %, 백만원)

	우리	산은	신한	KB	하나	씨티	SC	평균 ¹		은행계 ²	금융투자계 ⁴
ROA	0.40	0.23	0.81	0.16	0.58	0.50	0.47	0.32	<	0.39	1.61
ROE	8.61	2.27	10.26	2.45	9.49	5.41	8.43	4.82	<	5.76	8.43
1인당 총자산	13,382	5,691	14,203	13,871	14,103	13,758	13,361	12,624	<	18,957	4,874
점포당 총자산	217,161	578,744	200,387	225,923	198,606	201,911	184,540	258,182	<	272,539	57,566
Tobin's Q	0.85		0.99	1.28	0.78			0.97	<	1.00 ³	0.96

주1) ROA와 ROE는 2009.12 총수치이고, 나머지는 단순평균임

주2) 은행계는 2009.01~2009.12까지 기간임

주3) 상장은행을 대상으로 한 수치임

주4) 금융투자계는 2010.3월 기준임

자료: 각 사업보고서, 금감원

주요 특징: 리스크

- ❖ 금융지주회사는 리스크분산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음
 - BIS비율이 은행평균(14.62%) 보다 낮고 주력회사보다 대부분 낮음
 - 사업포트폴리오의 보완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기준: 2010.06, 단위: %)

	우리	산은	신한	KB	하나	씨티	SC	단순평균 ¹		은행계 ²
BIS비율	12.22	16.71	12.96	12.76	12.00	15.86	12.87	13.63	<	14.62
고정이하여신비율	2.97	3.20	1.51	2.03	1.41	1.52	1.44	2.01	<	2.32
원화유동성비율	2,661.22	117,470.73	178.82	63,859.55	561.08	0.00	14,995.92	28532.47	>	129.52
부채비율(부채/자본)	28.01	4.09	29.71	5.07	24.38	0.04	9.29	14.37	>	13.68

주1) 금융지주회사의 단순평균임

주2) 은행계는 2010.09 기준 수치임

자료: 금감원

2011년 전망: 은행의 주요 리스크요인

❖ 부실여신으로 수익성 둔화 예상

-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부실채권의 증가로 총당금전입액 증가 지속
 - 2010년 상반기 총당금전입액은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
- 예대금리차 확대
 - 높아진 가산금리가 하방경직성 보일 경우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대출자의 이자비용 증가시켜 여신 부실화 초래 가능
-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 상승
 -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 2010년 3/4분기 18.02%

❖ 중소기업대출, 가계 대출 부실 문제

- 중소기업대출과 가계 대출의 연체율은 2010년 2/4분기 이후 증가
 - 2010 3/4분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1.86%, 가계대출 연체율 0.68%,
- 중소기업대출과 가계 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 및 2009년 수준
 - 2010 3/4분기 중소기업고정이하여신비율 3.80%로 상승, 가계고정이하여신비율 0.60%로 2009년 수준

2011년 전망: 은행의 주요 리스크요인

-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 상승
 - 2009년 4/4분기 말 1.8% → 2010년 3/4분기 3.8%
 - Fast Track의 2010년 말 종료 및 중소기업 실적 양극화로 인한 일부 중소기업의 부실화 우려
 - 단,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선 반영되었으므로 영향은 제한적
- 금리 상승, 주택가격 조정 등으로 가계 채무상환능력 악화 가능
 -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80조원으로 추산

❖ 국제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 BCBS 등을 통해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레버리지 규제 신설
- 이로 인하여 자본 적립 강화, 유동성 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은행 수익성 감소 예상

❖ 환율의 변동성 증대 가능

- 2011년 원화 절상 과정에서 변동성 우려

2011년 전망: 은행권 이슈

❖ 우리금융 민영화 및 일부 은행 매각 등에 따른 은행산업 구조 개편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및 외환은행 매각 성사
 - 은행의 대형화 및 국제화 촉진
- 지방은행의 구조 개편
 -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리 매각 여부에 따른 지방은행 구조 개편
- 금융지주회사 전환
 - 한국씨티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및 일부 은행의 지주회사 전환 준비 본격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따른 법 제정

- 통합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및 감독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
- 투자상품 판매 축소 및 투자일임법 불허에 따른 PB업무 제한 예상

2011년 전망: 은행권 이슈

❖ 국내 감독제도 개편

- 바젤III의 도입에 따라 건전성 및 유동성 관련 감독 강화로 리스크관리 부담
 - 2010년 2월 4일 기준 BIS 14.57%, Tier 1 1.48%로 양호 수준
 - 보통주 중심의 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적 제고 필요성 증대
- 국내 신탁법 개정
 - 신탁관리방법 및 신탁가능재산 범위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신탁관리업무 확대 가능

❖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 이사회 중심의 리스크 관리

2011년 전망: 보험의 주요 리스크요인

❖ 보험에 영향을 미칠 큰 리스크요인은 제한적

- 부동산PF대출 관련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
- 향후 금리상승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
 - 저축성보험 등을 중심으로 이자율차 손실 발생 가능
- 손보사의 경우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 및 사업비 초과 지출
 - 적정손해율은 71%, 2010년 9월 기준 손해율은 88% 수준
- 보험사기 증가,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운행 증가 등의 요인 상존

2011년 전망: 보험의 이슈

❖ 고령화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

- 고령화 급진전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후-건강관련 상품 수요 증대
- 4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도입 및 소득공제 혜택 확대

❖ 퇴직연금시장 확대 및 경쟁 심화

-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2010년까지만 유효
- 2011년부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 (300만원 → 400만원)
- 보험사들의 영업전략 강화

❖ RBC 제도 의무 시행

-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 확충 부담 증대
- 실질적 재무건전성 제고 효과
- 새로운 재무건전성 체계 이행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요구

2011년 전망: 보험의 이슈

❖ 예금자보호법 개정

- 변액보험이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

❖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강화 문제

- 사업비 공시 등 보험관련 상품공시 규정 강화
- 보험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2011년 전망 1: 금융지주회사 구도의 개편

❖ 은행권 M&A로 금융지주회사 구도의 재편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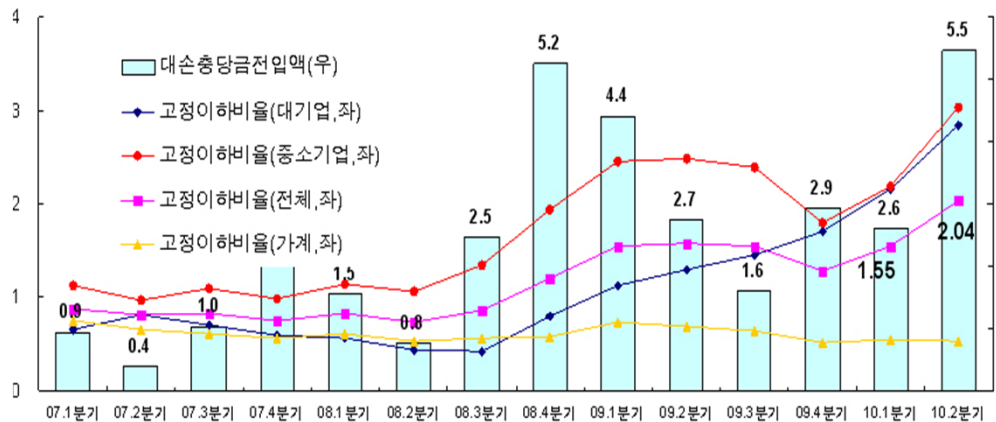
- 하나금융지주(158조)+외환은행(98조)
 - ⇒ 256조원으로서 4강 회복
 - 자금조달계획, 재무적 투자자 유치
 - 건전성 영향, 하나금융의 BIS비율은 12.00%이고 외환은행은 15.63%
-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298조)
 - 우리은행(224조), 광주은행(16조), 경남은행(21조)의 분리매각 가능성
 - 예보지분의 경영권 프리미엄의 할인 가능성

2011년 전망 2: 금융지주회사 실적의 부진

❖ 은행 부실여신 증대로 금융지주회사 실적 부진 가능성

— PF대출 부실, 가계대출 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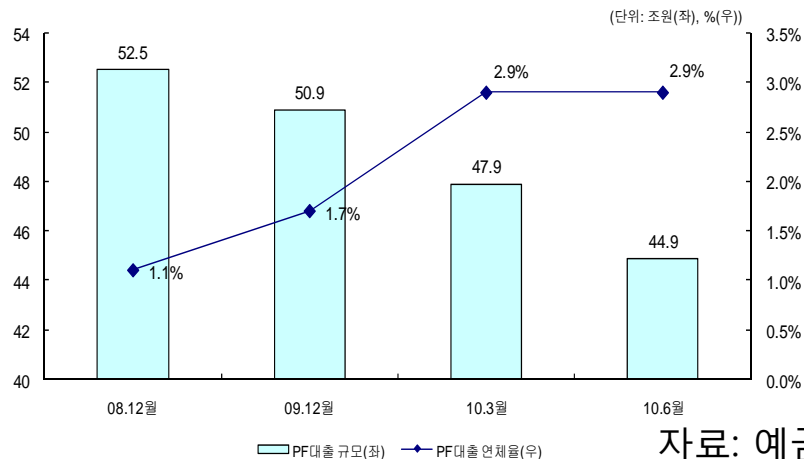
국내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대손충당금전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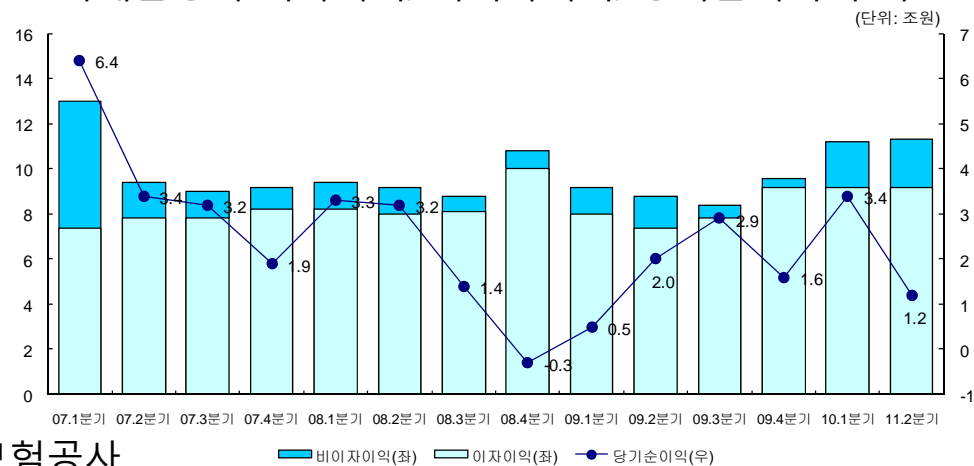
국내은행의 기업여신 주요 업종별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업종별 대출구성비
제조업	2.71%	43.05%
도매 및 소매업	1.86%	12.5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78%	11.66%
건설업(PF)포함	9.16%	6.75%
금융 및 보험업	2.35%	5.46%
숙박 및 음식점업	1.28%	2.62%

국내은행의 PF대출 규모 및 연체율 추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당기순이익 추이



자료: 예금보험공사

2011년 전망 3: 사업구조 유지

- ❖ 금융위기 이후 비은행부문으로 사업구조의 확장이 어려워짐
 - 대형은행 중심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거의 마무리
 -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Dodd-Frank법안의 영향)로 규모확장 또는 비은행 부문의 수익확장 연결이 어려움
 - 당분간은 계열사 확장에 주력